제5강 피카소 : 입체적 형태를 통한 사물 Ⅰ(0709_01/02)

(1교시-0709-01)

◎ 전천후의 예술적 천재, 피카소

▲ 피카소의 생애

- 1881년 출생. 1973년 사망.
- 타고난 예술적 재능
: 8살에 그린 <피카도르>부터 1971년 작, <모성>에 이르기까지.
: 시인 브르통[1]이 찬양할 정도의 위대한 시인.
: 디아길레프, 에릭 사티, 장 콕토[2]와 함께 무용극을 만드는 작업을 함.
: 공산당에 입당. 예술과 정치를 공동의 장에 결합시킴.
- 미술 분야에서의 영향력 :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미래주의, 러시아구성주의 등 당대 유럽 미술의 모든 조류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다다이즘(Dadaism)** : 제1차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 프랑스어로 목마를 가리키는 '다다(dada)'라는 말은 다다이즘의 본질인 '무의미함의 의미'를 암시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다다이즘은 조형예술을 비롯한 문학, 음악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비합리성. 반도덕. 비심미적인 것을 찬미. 대표작가로 R.리히텐슈타인, J.팅게리, C.올덴버그, H.로젠버그 등을 들 수 있다.

※ **초현실주의(Sur-Realism)** : 제1차 세계대전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20년 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 문학, 예술운동으로 인간의 잠재의식(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문명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성의 횡포로 억압되어 왔던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추구하고자 했다. 더불어 자동기술법에 의한 포토 몽타주, 데칼코마니, 마블링, 프로타주 등의 다양한 기법의 개발은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가로 달리, 에른스트 등이 있다.

※ **미래주의(Futurism)** :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탈리아의 전위예술운동. 마리네티가 창안한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1909~1914년 사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나 그 후 여러 나라에서 다른 양상을 띠고 발달해 나갔다. 미래파라고도 하며 이탈리아어로 포투리스모라 한다. 전통을 부정, 기계문명이 가져온 도시의 약동감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美)로써 표현하려고 했으며 회화에 있어 입체파의 기법을 사용, 대상을 해체하였다.

※ **러시아구성주의(Constructivism)** : 제1차세계대전 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예술 및 건축운동으로 서유럽에 퍼진 추상예술의 유파이다. 충동적이라는 용어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구성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보통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추상기하 구성인 <페인트 릴리프 painting reliefs>가 발표된 1913년을 그 시작으로 본다.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혁명 사회의 이념과 그 정책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 미술의 대중화를 중시했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예술의 필요성을 추구, 새로운 미학 이념 아래 테크놀러지라든가 물질, 구축적인 조형 방법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도입했다.

---

1) Andre Breton (1896~1966) 프랑스의 시인, 초현실주의의 주창자로 14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인간정신의 무의식 영역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 이론을 확립. 주요작품으로 소설, <나자 Nadja> (1928)가 있다.

2) Jean Cocteau (1889~1963) 프랑스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시는 희망 없는 종교이며 도덕이고, 작품은 영혼의 수련장'이라는 기본적인 예술관을 지님. 소설과 더불어 여러 희곡을 썼으며 그 중 몇 작품은 영화화되기도 했다.(<시인의 피>, <오르페우스의 유언> 등.)

www.artnstudy.com

▲ 피카소의 예술

- 재료와 영역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의 힘.
: 본질을 꿰뚫어 압축적으로 표현해 내는 데생
: 현란하게 조직해내는 색의 처리
: 최고의 조각가 못지않게 흙을 빚어내는 솜씨
: 일상 속에서 예술성을 발견해 내는 '레디-메이드' 작품.
⇒ 종합 예술적인 힘. 천재적 예술가로서의 면모.

※ 강의의 목표 : 회화의 대가들을 통해 사물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찾아낸다.

◎ 피카소 예술의 특징들

▲ 큐비즘(cubism, 입체주의)의 발전

1) 세잔적 큐비즘(1907-1909) : 의도적인 형태의 변형
2) 분석적 큐비즘(1909-1912) : 피카소와 브라크(George Braque, 1882-1963, 프랑스)에게 후안 그리(Juan Gris, 1887-1927, 스페인)가 가세한 시기. 분해. 단순화. 세세한 요소들로 해체된 형태들.

※ 브라크 : 파리 근교 아르장트유 출생. 피카소와 함께 큐비즘을 창시, 발전시킨 작가로서 20세기 미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카소가 자주 변모하는 데 비해 브라크는 자신의 본래 개성에 따라 차분히 큐비즘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초기에는 풍경을 주로 그렸고, 중기 이후는 정물, 실내, 인물 등을 주제로 삼았는데 그 구성의 밑바탕에는 항상 이성과 감각의 미묘한 조화를 제대로 중시하는 프랑스인적인 전통이 풍긴다. 주요작품으로 <앙베르항구>, <레스타크의 집들>, <기타를 든 남자> 등이 있다.

3) 종합적 큐비즘(1912-1914) : 모방의 과정 폐기. 창조된 기호들에 의존하게 됨. (파피에 콜레(papier colle)[3]라고 하는 콜라쥬 기법을 활용.)

(2교시-0709-02)

▲ 입체주의의 세부적 특징 (사물 또는 사물성과 관련하여)

1) 양감성의 강조
- 세세한 묘사의 생략
- 단순명료한 명암대비와 거친 표현. (cf.세잔, '원뿔, 원기둥, 구 등을 표현하라.')
⇒ 세잔적 큐비즘의 특징. 사물의 사물성에 집중.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되어 묵직한 중량감을 느끼게 한다.

3) 회화기법의 하나로 그림물감 이외의 다른 소재를 화면에 풀로 붙여서 회화적 효과를 얻는 표현형식.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트롱프뢰유의 화법을 채택한 것으로 1920년 다다의 전시회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에른스트가 창안한 콜라주 기법에서 집약되었다.

www.artnstudy.com

2) 다중 시선의 활용

- 하나의 사물이 지닌 사물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물 전체를 포착.
- 사물들의 여러 단면들을 동시에 표현.
- 사물의 부분 부분에 대한 시선들을 나누고 사물의 전체에 대해서는 시선들을 나누어 재결합하는 방식.

⇒ 피카소의 예술 생애 전체를 관통. 특히 분석적 큐비즘 시기에 극단화 된다.

www.artnstudy.com